



## [지속가능] 핀란드 유업체, 낙농가에 ‘지속가능 인센티브’ 지급

- 발급 관리, 개방형 우사 설치 등 지속가능기준 충족시 리터당 약 27원 가급



핀란드유가공조합 Valio가 4,300개 소속 농가 모두에게 ‘지속가능 인센티브’를 지급할 계획이다.

해당 조합은 지난 2018년 지속가능성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자체적으로 동물복지 향상을 위한 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소속 농가의 가축 질병 예방과 동물복지에 대한 체계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기준을 충족시키는 농가를 대상으로 인센티브를 추가로 지급해왔다.

이를 통해 낙농가들은 동물복지법을 근거로 마련된 조합의 관리 기준은 물론 정기적인 발급 관리, 젖소의 통증 완화를 위한 마취제 또는 진정제 사용, 뿔 제거를 비롯해 젖소의 자유로운 활동을 위한 개방형 우사 설치 등의 추가 기준을 충족시켜야 하며 수의사가 일 년에 한번 농가를 직접 방문해 이를 평가한 후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다.

이에, 지난해 약 98%의 농가가 인센티브를 받는데 이어 올해는 모든 농가가 관리 기준을 충족시키며 리터당 2센트(약 27원)의 인센티브를 추가로 지급받게 되었다.

업체관계자는 “앞으로도 젖소의 방목 및 야외활동을 늘려 동물복지를 더욱 향상시킴은 물론 지속가능한 원유생산 기준을 통해 젖소의 분뇨 등 농가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 배출량 절감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도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출처 : dairyreporter.com, 2월 8일자 >

## [산업동향] 지난해 세계 원유생산량 코로나19 악재 속 증가

- 주요 원유생산국 생산량 증가...전반적인 수요도 상승하며 양호한 흐름 보여



대공황 이후 100년만에 최대 위기라는 코로나19 악재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세계 원유생산량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럽연합통계청(Eurostat)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EU 27개국과 영국의 원유생산량은 전년동기대비 0.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세아니아의 경우 뉴질랜드의 7월부터 10월 누적생산량도 0.7% 늘었고, 호주의 11월 누적생산량은 전년동기대비 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반구의 주요 원유

생산국의 경우 2020년 미국의 원유생산량은 전년대비 1.9% 증가했고, 아르헨티나는 7.2% 늘며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Daily Dairy Report의 낙농분석가는 “전 세계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이동제한 조치로 식품서비스업의 수요가 크게 감소하며 증가한 원유 공급량이 갈 곳을 잃은 듯했으나 정부 보조프로그램, 소매 유통채널 등을 통한 전반적인 유제품 수요 증가로 식품서비스업의 수요 감소를 상쇄했다”고 분석했다.

또한, 늘어난 원유 공급량만큼 최대 유제품 수입국인 중국의 유제품 수요도 꾸준히 이어짐에 따라 양호한 흐름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 출처 : dairyherd.com, 2월 3일자 >

위 내용은 세계낙농동향을 전파하기 위해 해외 낙농사이트에서 뉴스를 발췌해 번역한 것으로 낙농진흥회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위 내용을 기사 작성시 활용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